

# 서방 ‘벨라루스 핵배치’ 러 비판…나토 “위험하고 무책임”

EU “벨라루스 추가제재 대응”  
 프랑스 “유럽 전략안정성 훼손”  
 독일·폴란드 “세계 평화 위협”  
 미국 “실제 배치된 건 아직 아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웃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서방이 일제히 비난 목소리를 내며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2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 “러시아의 핵위협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아직 러시아의 핵태세에 변화가 없어 이에 대한 대응은 불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나토 대변인은 “우리는 러시아의 핵태세에 우리의 핵태세를 조정할 정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수십년간 전술 핵무기를 나토 동맹국에 배치해왔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토의 핵공유와 관련한 러시아의 언급은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나토 동맹국은 국제조약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하는 등 지속해서 군축협정을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트위터에서 “벨라루스가 러시아 핵무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책임한 긴장 고조 행위이며 유럽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벨라루스는 지금도 그 일을 멈출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선택지”라며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로 대응할 태

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푸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자국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분명히 중대한 선을 넘는 것”이라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징후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아직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결정은 (2019년 파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과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선언에 뒤이어 유럽 전략안정성 통제체제를 훼손하는 또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외무부는 “러시아가 핵보유국에 요구되는 책임감을 보여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이 합의(벨라루스와의 전술핵 배치 합의)를 재고하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독일 정부도 “벨라루스 내 핵무기 배치에 관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또다른 핵위협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끌어들이는 나토의 핵공유 관련 비유는 사태를 오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 행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벨라루스는 최근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의 동부 최전선 폴란드도 유럽과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강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미국이 수십년간 전술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해왔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동맹인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연합뉴스



**미 미시시피주 덮친 토네이도** 최대 시속 80마일(약 128km)에 이르는 강풍과 골프공 크기만 한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미국 동남부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지 이틀 후인 26일(현지시간) 사키 카운티 롤링포크의 한 건물이 파괴돼 있다. 지난 24일 밤 미시시피주 삼각주 일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고 주 당국은 전했다. /연합뉴스

## 미 상원의원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고려해야”

### “북 ‘핵 탑재 시험’ 전쟁 시뮬레이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밝혔다.

리시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VOA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잇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다”면서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테스트의 속도와 다양성은 북한이 전쟁 시 사용(wartime use)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군사적 충돌 때 상황이 격화하는 것을 북한이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이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으나 이를 보통 일로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자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 강행’ 반발하는 이스라엘 시민들**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해임을 발표한 하루 뒤인 27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시민들이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WSJ “우크라이나군 몇 주 내 대반격”

서방으로부터 수주간 신형무기를 전달받은 우크라이나군이 수주 내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향후 전투와 평화협상의 향배를 정하는 고위험 작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작전 계획은 비밀이지만 양측의 장비와 최근 전선에서 전투 수행 등을 비교해볼 때 어느 정도는 가능해볼 수 있다.

전략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더 풍부한 자원과 견고한 방어에 맞서 성공하려면 기술과 행운, 약점을 재빨리 이용하는 것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크라이나군은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일부는 러시아군보다 무장이 잘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맞서 수개월간 준비를 해왔고 인명과 물자를 더 가까이 쏟아부을 의향이 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것”이라면서 “러시아인의 큰 잠재력과 야수적 힘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무기 제공과 훈련 지원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영변 핵 폐기장 수상한 활동”**  
국제원자력기구 전 사무차장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단지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수상한 활동이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율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영변 원자력연구소의 상업위성 사진을 보면 연구소의 ‘옛 폐기물 처리장’(Old Waste Site)에서 새로운 활동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옛 폐기물 처리장’은 IAEA가 1992년 핵폐기물 시설로 추정해 조사를 요청한 부지 중 한 곳으로, 북한은 당시 핵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지를 매립해버렸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air purifier **DK**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